

LPGA 태극 낭자들 메이저 우승사냥 나선다

박인비 · 유소연 · 전인지 등 8월 3일부터 열리는 '2017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 출전 확정

골프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를 비롯해 세계랭킹 3위 유소연(27·메디힐), 메이저 강자 전인지(23) 등 한국여자골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브리티시 오픈 정상 등극에 도전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2017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총상금 325만 달러)이 8월 3일부터 나흘 간 스코틀랜드 킹스빈스 골프 링크스파 72·7227야드)에서 열린다.

대회 주최 측은 올해 대회에 박인비, 전인지, 유소연 등 한국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강자들이 출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인비는 2015년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

유소연은 2015년 이 대회 공동 3위 등 지금까지 5차례 출전해 '톱10'에 3차례 진입, 성적이 괜찮았던 만큼 이번에는 정상 등극을 노린다.

지난해 9월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이후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전인지도 통산 3승 사냥에 나선다.

전인지는 올 시즌 준우승만 4차례하며 언제든 우승에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갖췄다.



2017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 대회 주최 측은 올해 대회에 (시진원쪽부터) 박인비, 전인지, 유소연 등 한국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강자들이 출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현 세계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에리야 쭈타누칸(태국)과 85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킨다 최근 2위로 내려간 리디아 고(뉴질랜드), 올 시즌 우승 1회, 준우승 4회의 렉시 톰슨(미국),

재미교포 미셸 위(미국) 등 세계적인 강호들이 출전한다.

대회가 열리는 스코틀랜드 킹스빈스 골프 링크스는 21세기에 조성된 골프 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손꼽힌다.

동시에 북해에 인접해 있어 발생하는 강한 바닷바람과 깊은 러프, 항아리 벙커, 기복이 심한 페어웨이 등으로 난도 높은 코스로 유명하다.

/김민근기자

KIA 최형우, 올스타 투표 2차 중간집계 선두 · 최다 득표 1위

삼성 이승엽 · 넥센 이정후 올스타 선정 유력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4번 타자 최형우(34)가 올스타 편 2차 중간집계에서도 최다 득표 1위를 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8일 오후 4시 기준 2017 티어아웃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선정 편 투표 중간집계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지난 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편 투표에서 나눔 올스타(NC·넥센·LG·KIA·한화) 외야수 부문의 최형우는 유포 투표수 75만8494표를 획득해 2주 연속 최다 득표 선두를 질주했다.

최형우는 지난 12일 발표된 1차 중간집계에서도 46만2153표로 최다 득표 1위였다.

나눔 올스타 선발투수 부문의 양현종(KIA)이 71만7174표를 받아 최다 득표 2위에 올랐다.

드림 올스타(부산·SK·롯데·삼성·kt) 3루수 부문 최정(SK 와이번스)이 70만3797표로 최다 득표 3위에 자리했다. 드림 올스타 1루수 부문의 이대호(롯데·자이언츠·67만9773표)가 2위 4000여 표 차 뒤진 4위다.



불과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정규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 KIA 선수들이 베스트 12 8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드림 올스타 2루수 부문에서는 최주환(부산·40만8732표)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조동찬(삼성·40만8884표)이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나눔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은 1위인 김태균(한화·47만8295표)과 2위 나지완(KIA·44만9158표)의 표 차가 2만8777표에

STATS 앱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투표수를 합산한 결과 유포 투표수는 총 133만4695표였다. 지난해 2차 중간집계 당시 11만1573표보다 20.5%가 증가했다.

올스타전 베스트 12 선정 편 투표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된다. 편 투표수와 선수단 투표수를 점수로 환산해 70% 대 30% 비율로 합산한 최종 결과는 7월 3일 공개된다.

/김민근기자



'미이라' 주말 극장가 박스오피스 장악

'톰 크루즈가 주연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미이라'는 16일부터 18일까지 49만명을 모아 누적 관객 수 322만명을 기록했다. 영화는 1999년 시작해 2008년까지 세 편이 제작된 '미이라' 시리즈의 리부트(reboot) 첫 번째 영화다.

유니버설 픽처스의 고전 몬스터 영화 리부트 프로젝트인 '드크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하다.

2위는 같은 주말 47만 관객을 더해 누적 관객 수 56만명을 기록한 '하루가 차지했다'.

주연을 맡은 김명민·변요한의 터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개봉 직후 호응을 얻고 있다.

3위는 같은 기간 24만명을 더한 김옥빈 주연의 '악녀다. 누적 관객 수 92만명으로 이번 주 초 종 누적관객수 100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뉴스

tvN '삼시세끼-어촌편' 올해중 방송

케이블 채널 tvN에 능프로 그램 '삼시세끼'가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 19일 tvN 측 관계자는 "‘삼시’



세끼 어촌편'은 올해 중 방송될 예정"이라며 "기획 초반 단계로 편성 시점이나 출연진 모두 미정이다"고 밝혔다.

'삼시세끼'는 출연진들이 외딴 시골에서 머물며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지난 2014년 10월 17일 '삼시세끼-정선편' 시즌이 첫 전파를 탄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시리즈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종영한 '삼시세끼-어촌편'에서는 배우 이서진(46)과 에릭(38), 윤균상(30)이 출연해 활약을 펼쳤다.

/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제주서 대규모 워크숍

엑소·소녀시대·동방신기 등이 소속된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대표 이수민)가 19일부터 내일까지 자회사 제주에서 대규모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제주공항에 도착한 동방신기 유노윤호, 엑소, 소녀시대 등 SM 소속 연예인 30여명은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전기차 16대를 나눠타고 서귀포 중문으로 이동했다.

이들을 맞이하러 나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유명 연예인이 정정 지역 제주도를 찾아 전기차를 홍보해주시니 이번 워크숍은 제주 입장에서도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인원은 소속사 연예인 100여명을 포함해 임직원 700여명 등 총 900여명이다.

/뉴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